中, '사이비 승려' 구별 위해 DB 구축

차이나데일리, 12월 8일 중국 공산당 방침 '주목'

중국 정부가 진짜 생불(生佛) 가리기에 나선다. 최근 너나할 것 없이 자신이 '생불'이라 주장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라마(Lama)' 혹은 '툴쿠스(Tulkus)'라 불리는 '생불'은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에서도 막강한 힘을 갖는다.

중국 일간지 '차이나데일리(China Daily)'는 12월 8일 "중국 정부가 최근 공인된 '생불 데이터'를 구축해 온라인으로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명 '사이비 승려'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종교인의 탈을 쓰고 불법 자금을 운영하는 등 악의적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중국 공산당은 "'좋은' 생불과 '가짜' 생불을 구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것은 생불의 진위여부를 판단치 못하는 일반인들이 일부 가짜 '생불'들에 매도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티베트 불교의 확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결단은 최근 중국의 유명 배우 장톄린(Zhang Tielin)과 그를 생불로 임명한 바이마 아오써(Baima Aose)가 모두 거짓이었단 사실이 드러나며 발단이 됐다. 티베트 불교는 생불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어린 아이로 환생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현재 39세인 바이마 아오써는 자신이 2012년에 쓰촨성 간쯔 티베트족 자치구에 위치한 카투오(Katuo) 수도원에서 생불로 인정받았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카투오 수도원은 12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이마 아오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그가 소지한 티베트어 문서도 관련 없는 내용이다. 그는 티베트어를 모르는 불자들을 현혹시켰을 뿐 아니라 수도원 명성에 누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생불, 중국서 영향력 막강
'가짜' 속출하며 불법 자행도
장톄린 사건 후 수면 위 떠올라
"티베트 불교 경계 목적도"

또한 주웨이췬(朱維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장은 최근 중국 중앙TV(CCTV)에 출연해 바이마 아오써가 장톄린을 생불로 임명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주웨이췬 회장은 "가짜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속여 재산을 뺏는 등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톄린(Zhang Tielin · 사진왼쪽)과 바이마 아오써(Baima Aose · 사진중앙). 사진출처=신화통신

비난 여론이 일자 바이마 아오써와 장톄린은 모든 종교직을 사임하고 사과를 표명한 상태다. 중국 언론 'ECNS'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톄린은 티베트 불교사원에서 생불로서 증명을 철회 당한 후 모든 종교 소임으로부터 물러났다. 또한 바이마 아오써도 8일 자신의 SNS 계정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수행과 신행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을 '생불'이 아닌 '요가 수행자'로 칭했다.

그러면서 바이마 아오써는 "내 근원 및 환생과 관련한 모든 논란들이 모든 불교도들과 여론의 분노와 의심을 야기했다"면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 나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주웨이췬 회장이 공개한 영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영상 속 장톄린은 승복 차림을 하고 있지만 생불로 임명하는 의식을 치르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두고 티베트 암도(Amdo) 지역의 '생불' 두오스 린포체는 "변두리에 있는 수도원에서 '생불 증명서'를 돈으로 사고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정부 차원의 '생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사이비 승려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티베트 아바(阿坝) 지역 '생불' 샤바 린포체(지방생불협회 이사)는 "데이터베이스가 속히 만들어져 대중에 공개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진짜 종교인을 만날 기회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고물상에서 산 관음상 1690만원에 낙찰

18세기 티베트 '마두관음' 英 연금옥션에서 가치 '재조명'

이번 경매에 나온 18세기 티베트 마두관음상.

영국에서 단돈 4파운드(한화 약 7,200원)에 구입된 밀교 관음상이 '연금 옥션'에서 9,500파운드(한화 약 1,690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판매자가 연금수급자인 여성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The Argus'는 12월 8일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서식스에 있는 타운, 미들허스트의 연금수급자인 한 여성의 밀교 관음상이 연금 옥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관음상은 경쟁적으로 호가되며 9,500파운드에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행운의 여성'이 연금 옥션에 내놓은 밀교 관음상은 18세기 초 티베트에서 제작된 높이 16.6cm의 '진품 청동 마두관음상'으로 밝혀졌다. '연금 옥션' 측은 당초 500~700파운드(한화 약 89~125만 원) 선에서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매 결과는 예상을 초월했다.

연금 옥션 측에 따르면 이번에 낙찰된 밀교 관음상은 '마두관음'의 일종인 '히야그리바(Hayagriva)'로 머리에 말머리를 이고 있다. 육관음 중 하나인 마두관음은 티베트에서 '난치 피부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한때 크게 유행했다. 또 프랑스의 기메국립아시아미술관에 소장된 히야그리바와 비슷한 조상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The Argus'는 히야그리바 감정을 맡았던 존 니콜슨(John Nicholson)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이번 경매 결과는 아시아 종교미술에 대한 영국 경매계의 관심을 가늠하게 한다"며 "몇 백 년 전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신상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지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영국 미술애호가들의 아시아 종교미술에 대한 식지 않는 사랑에 주목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장 스님 기록 따라… 바드나가르 절터 발굴 착수

인도고고학조사국, 고대 불교사원 터 정밀 조사 들어가

인도고고학조사국(ASI)이 2014년 바드나가르 지표 조사를 실시하며 발견한 불교 유적.

인도 국무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고향이자 중국 주석 시진핑의 첫 인도 방문지로 주목받았던 구자라트주의 바드나가르(Vadnagar)에서 고대 불교 사원 터를 찾는 발굴 조사가 시작된다.

'ZNEWS'는 12월 8일 "인도고고학조사국(이하 ASI)이 바드나가르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허가 받았다"며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이번 발굴 조사는 이 지역의 고대 불교 사원 터를 찾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바드나가르 지역에 대한 지표 조사를 실시한 ASI는 해당 지역에서 교역로와 이를 잇는 마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가면 고대 불교 유적도 찾을 수 있다는 게 ASI의 전망이다.

"바드나가르 지역은 인도와 유럽을 연결했던 교역로라는 게 인도 고고학계의 정설"이라고 강조한 ASI 측은 "현장(Hiuen Tsang) 스님이 이 지역에 대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바드나가르 지역에는 적어도 10여 개의 불교 사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도 고고학계는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기념비적인 불교 유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인도 첫 방문을 준비하며, SNS를 통해 자신의 고향 구자라트주 바드나가르의 고대 불교계가 인도와 중국의 소통과 교류에 큰 몫을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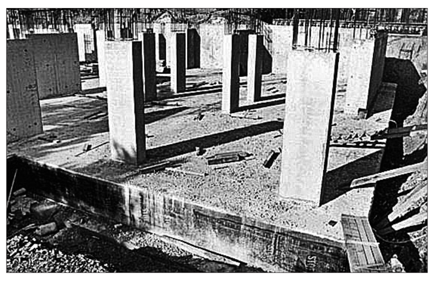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에 화답하듯 2014년 9월 구자라트주 바드나가르를 인도 첫 방문지로 삼고, 불교에 근거했던 고대 양국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했다. 이에 더해 동시대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힘을 실어 이 지역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한편 'ZNEWS'는 "구자라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인도 정부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발굴 조사가 바드나가르 지역의 불교와 교역을 중심으로 한 6~8세기 고대사가 새롭게 밝혀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모스크 지으려면 불교 사찰도 지어라"

ITU학생들, 종교 자유 외치며 '불교 사원 건축' 주장


터키 이스탄불기술대학(ITU)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스크 건축 현장.

이슬람의 나라, 터키의 대학생들이 캠퍼스에 사찰을 짓자며 시위에 나섰다.

'Daily News'는 12월 10일 "이스탄불기술대학(이하 ITU) 재학생들이 캠퍼스에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를 건설하는데 반발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를 비판하며 '불교 사원을 건설하자'는 다소 풍자적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4학년 엘리프 사팍 우루쿠 씨는 "우리는 자유로운 예배와 균형 있는 가치관을 원한다"며 "ITU 재학생들은 종교 자유를 막는 정부와 대학 당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프 사팍 우루크 씨는 ITU 캠퍼스에서 모스크 건설이 시작되자마자 '종교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인터넷 청원을 진행했다. 이에 2만5000여 명의 재학생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ITU 메흐메트 카라카(Mehmet Karaca) 총장은 "18만5,000여 지역 주민들이 캠퍼스 내 모스크 건설을 요청하고 있다"며 "ITU 캠퍼스의 주거용 부지에 모스크 터를 마련하고 건축하는 것은 주민들의 바람과 학생들의 청원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교육의 정점인 대학 캠퍼스에 모스크 건설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지난 2014년 4월 19일 메흐메트 고메즈(Mehmet Gormez) 터키 종교장관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고메즈 종교장관은 "터키의 2000만 젊은이들이 이슬람 종교지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캠퍼스 내 모스크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스크와 대학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Daily News'는 지난 11월 총선에 승리해 독립 정부를 꾸린 정의개발당의 주류가 수니파인 점에 주목, "터키에서 수니파의 종교 교육 철학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며 "현재 50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스크 건설 역시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